광주재능기부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 '책읽는 벤치 in 광주' 프로젝트

집 앞 벤치를 책 읽는 곳으로…

7일 푸른길공원서 발대식… 10월까지 시범 운영

"단순한 책읽기 아닌 같은 공간에서 공감 나눠요"

재미있게 읽은 책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벤치에 놓아두는 독서운동이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시작됐다. 단순한 책읽기 운동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누구나 행복한 공감을 얻기 위한 시민 행복 프로젝트다.

광주재능기부센터 등 광주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푸른길공원 기차도서관 앞에서 시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 읽는 벤치 in 광주'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첫 걸음을 뗐다.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광주·전남 대학생 소셜 네트워크', '책 읽는 고릴라',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용봉점' 등의 단체가 참여했고, '문화와 소통, 양심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 시작됐다.

'책 읽는 벤치'는 약 10년 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루일방크(Ruilbank) 프로젝트에서 동기를 얻었다. 네덜란드어로 '교환'이란 의미의 'Ruil'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다 읽은 신문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놓아둔데서 착안해 집 앞이나 공원의 벤치에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을 빨간 클립으로 꽂아두는 캠페인이다. 시민 누구나 벤치에 놓인 책을 읽고 다른 책과 교환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보통의 공간인 벤치를 모두가 즐기고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발대식은 '공감과 즐거움'이라는 목적에 맞게 음악 공연, 책 토크콘서트, 벤치지기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통기타 가수들의 7080 노래는 동시간대 열린 '푸른길 별별장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초가을밤의 낭만을 선물했다.

이어 윤장현 광주 아이안과 원장은 '책과 나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라며 "책 읽는 벤치를 통해 책에서 얻은 즐거움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사전에 참여신청을 한 '벤치지기' 8명도 함께 소개했다. 이들은 기부를 전제로 집 앞의 벤치에 책을 집게로 집어 놓거나 바구니에 담아 내어놓고, 소셜네트워크 등에 자신이 어떤 책을 어느 장소에 놓아 두었는지를 공지한다. 광주재능기부센터는 책 읽는 벤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책갈피나 스티커 등을 보급해 시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책 읽는 벤치'에 참여하게 된 신광조(57)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집 인근 상무지구 BYC건물과 하나은행 사이에 위치한 벤치에 시집을 놓아둘 생각"이라면서 "벤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머물다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집을 생각했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탁아림(여·25) '책 읽는 고릴라' 코디네이터는 "만약 벤치에 놓은 책을 누가 가져가 비워져 있다면 누구든지 책을 다시 놓아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성숙한 광주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제20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프레(Pre)행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가자들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남도김치, 경복궁 나들이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서울 행사'

'김치·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원

남도김치가 경복궁에서 궁중김치와 만났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에서 올해로 20회를 맞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의 프레(Pre)행사인 '서울 특별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특별행사는 성년을 맞은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를 기념하고 문화재청이 추진중인 '김치와 한국의 김장문화'가 UNESCO에서 지정한 인류무형유산으로의 등재를 성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7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서경덕 교수, 박기태 반크(VANK) 단장, 김치버스팀 등 축제 홍보대사 등이 참여했다.

'한국의 김장문화 특별체험'과 '궁중김치와 남도김치 전시' 행사와 함께 '광주명품김치 '김치光 홍보관' 운영, '김치버스' 경복궁 나들이, 반크김치홍보대원의 취재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궁중음식 전문가인 한복려씨(중요무형문화재 38호·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가 직접 참여해 다양한 궁중김치와 한국의 김장문화를 소개해 주한 외교사절과 경복궁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김치와 김장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제20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는 '남도김치, 세계로 날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안동민 작가 장애학생들과 '아름다운 전시회'

"아이들의 꿈·희망 자전거에 실어봅니다"

광주은혜학교·서울은평대영학교 학생 22명 참여

'디자이너와 장애학생들의 아름다운 동행.'

서울 디자인 회사 인터그램 그래픽스 안동민 대표는 2013 광주비엔날레 참여작품의 모티브를 생활과 밀접한 '자전거'와 '밥솥'으로 잡았다. '밥솥과 자전거의 진화'라는 전시를 통해 디자인과 우리 삶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안 대표는 자전거가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의 이미지에 특히 주목, 그 자전거 바퀴를 함께 굴리며 '꿈'을 만들어갈 동반자를 찾았다. 그리고 광주 은혜학교와 서울 은평대영학교 장애학생 22명과 이번 전시를 함께 꾸몄다.

그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앞서 한 달간 두 학교를 오가며 'Growing Dreams' 워크숍을 진행, 아이들과 함께 저마다 생각하는 모양의 자전거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이 한지, 도화지, 연습장 등에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으로 그린 알록달록한 자전거 그림은 이번 전시의 한 코너로 소개됐다. 아이들은 어엿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작가가 됐다.

그는 또 아이들의 그림을 'Growing Dreams'란 이름의 도록으로 엮어 판매중이다. 판매 수익금은 두 학교에 전액 기증한다는 생각이다. 이영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전시를 보고 안동민 대표가 가슴이 따뜻한 디자이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밥솥과 자전거의 진화' 전시가 열리고 2전시관에서 특별한 미니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자신들의 전시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광주 은혜학교 학생들을 위해 안 대표와 가수 하림씨가 함께 준비한 행사였다.

7일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열린 가수 하림과 은혜학교 학생들의 미니콘서트.

이번 전시에서 밥솥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한 하림씨는 아이들에게 '바오밥나무' 등 4곡을 들려주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안 대표는 "한 개인의 작품 공간이 아닌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시를 만들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공간을 꾸몄다"며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벌교·강진만 갯벌, 신안 가거도' 도립공원 지정 추진

전남도는 8일 "벌교갯벌, 강진만갯벌, 신안 가거도 등 3곳의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지형경관, 자연생태계 조사, 주변 개발여건, 문화자원과 인문환경 등을 조사한다.

용역 추진과 함께 다음달에는 대상지 주민 의견수렴, 내년 3월에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국립공원으로 지리산, 월출산, 내장산, 다도해, 한려해상, 무등산 등 6곳이 있으며 백운산이 지정 추진 중이다. 도립공원은 조계산, 천관산, 두륜산, 무안갯벌, 신안증도갯벌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면 '불량식품'에서 계속

문제는 기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관련 사업 예산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주의 기금 사용액은 21억원, 전남은 18억원에 불과해 30억~175억원에 달하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비해 적었다.

특히 위생설비 시설을 개선하는 등에 지원되는 융자 사업비가 부족해 광주는 지난해 13억원, 전남은 9억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또 광주의 경우 장기적인 식품 위생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지원 사업에는 단 한푼도 쓰지 못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를 위해 78억원의 국고를 지원할테니 일선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추가 예산 편성하라고 지시했지만 기금액에 따른 지역별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36곳이 설치돼 있는데 광주·전남은 각 1곳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부분 식품 관련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늘리면 기금 조성에 애를 먹고 있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다"면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추가 예산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현 | 장 | 직 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근 무 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 초보자가능, 즉시근무, 장기근무가능, 작업환경좋음.

주식회사 엠 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운행 : 두암동 → 문흥동 → 오치 → 일곡 → 양산동 → 첨단지구 → 신창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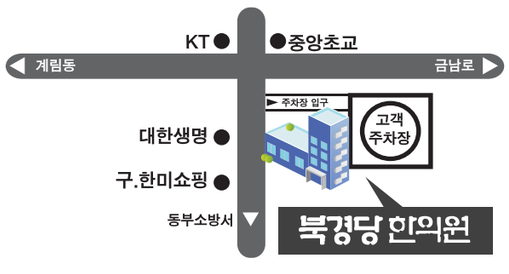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